

제 12 장 사도 행전 Tape #8101

1절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자기 손을 뻗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립바 1 세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만난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인데, 그는 열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각기 다른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지독히 혼란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아들들은 각기 다른 아내에게서 났기 때문에 단지 반쪽 형제일 따름입니다. 그는 이름이 마리암네라는 약간은 혼란스러울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의 마리암네를 그는 다른 여인들보다 사랑했던 모양이나, 그 여자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자기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여, 두 아들들과 함께 그 여자를 죽였으나, 그 뒤, 그는 양심에 가책을 느껴 예루살렘에 그녀를 위한 아름다운 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내 마리암네에게는 아리스토틀로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헤롯 아그립바 1 세라는 이름의 아들 하나와 헤로디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음, 다른 아들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는 사분 영주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으로, 본 헤롯 왕국의 세 번째 부분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 자신의 수도, 티베리아 시를 지었는데, 이는 그곳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시기에 거기 있었고, 그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강요했던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선동에 놀아났던 자였습니다.

자, 헤로디아는 본래 다른 헤롯, 즉 헤롯 빌립과 결혼했으나, 헤롯 안타파스가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잠깐 멈추어 반쪽 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 그러나 동시에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와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자, 그는 계속해서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다시 방문했을 때, 그녀와 함께 도망쳐, 바로 그녀와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며, 당신이 헤로디아와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신도 알다시피, 그녀는 당신 동생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적당한 시기에, 그녀는 쟁반에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당시 헤로디아의 동생이었으므로, 거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무엇이든지 잘 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매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빚을 많이 지고 있었기에, 마침내는 로마를 통치하던 카이사르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는 말파라고 불리는 이두메의 요새로 추방을 당했는데, 거기서 매우 기가 죽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할 만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의논을 했고, 헤롯 안티파스는 그에게 시장의 검사역이라는 일자리를 주고, 봉급도 주었습니다. 한동안은 함께 잘 나갔지만, 급기야 그들은 큰 논쟁 속에 빠지게 되어, 공중에 나타나는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곳을 떠나 시리아를 통치하는 자가 학교 친구였기 때문에 시리아로 올라갔으나, 그곳에서도 큰 논쟁이 있어서, 그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케인스 칼리구아와 절친하게 된 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아스에 관하여 그 친구와 이야기한 연유로 싸움에 관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보다는 당신이 더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 왕국은 당신에게 양도되어야만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허! 하인이 그것을 듣고 티베리아스에게 보고하자, 티베리아스는 즉시 헤롯 아그립바 1 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6 개월 후 티베리아스가 죽자, 칼리구아가 그 권한을 넘겨받고, 헤롯 아그립바 1 세에게 금 팔지를 주었는데, 그 무게는

감옥에서 그를 묶고 있던 고리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고 하며, 그에게 유대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또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립바 왕이라는 모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그립바 1 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를 화나게 만들었고, 그의 여동생 헤로디아는 미쳐 날뛰었으며, 그녀는 안티파스에게도 왕의 직위를 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갈 것을 재촉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안티파스가 이 목적으로 로마로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을 메신저에게 들려 먼저 보냈고, 그가 왕의 직위를 얻기 위하여 칼리구아에게 오자, 실제 그림은 그가 추방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잃게 되었고, 그 당시 헤롯 아그립바 1 세에게 그의 재산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립바가 유대에서 그런 과정으로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 동시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의 종교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공휴일을 지켜 주었고, 이것은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통치자들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헤롯 아그립바는 그 점에서 달랐고, 유대인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다고 느끼자, 그는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몇 교회를 성가시게 하려고 그의 손을 들었습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인 우뢰의 아들 중에 하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데, 그, 그의 형제인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위하여 선택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분은 베드로와 요

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기에, 그들은 그 변형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왔을 때, 그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집밖으로 내보냈으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대로 방에 있게 하여, 죽음으로부터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고통당하시던 그 밤에도, 그 분은 제자들을 한 장소로 보내며, 여기에 머물라고 말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약간 저쪽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분은 그들을 더 가까이 두시며,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가장 가까운 관계로 선택된 자들 중에 하나인 그는 동생인 요한과 베드로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칼로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3절 “또 그가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다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더니 [그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전통에 따르면, 무교절 기간에는 누구도 죽이거나 죽음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절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지키게 하더니, 이것이”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네 개조의 군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한 조는 네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4 코테[four quartet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16 명인 셈인데, 그들은 교대로 일을 했을 것이고, 네 교대 근무로서, 그룹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재배치가 되는 데는 6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의하면, 죄수는 간수와 묶여져 있어, 죄수의 오른손과 간수의 왼손이 서로 묶여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의 경우 이런 규칙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간수가 각기 한 쪽씩을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간수는 독방의 문에 있고,

다른 한 간수는 병동의 문에 있어, 베드로를 지키는 임무로 4 명의 간수가 끊임없이 지키고 있었으며,) “이스터가 지난 뒤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함이더라.” 그는 이스터 후에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작정했습니다. 이스터라는 단어는 킹제임스의 영어 번역자들에 의해 옮겨진 말로서, 헬라에서 그것은 유월절 뒤에 있기 때문에, 이스터와 유월절은 관계가 있습니다. 번역자가 이스터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원래 헬라 본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교절 후에, 이는 유월절 잔치와 함께,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따르는 7일 후에, 그 잔치 후에 그를 데려오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적으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오래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며칠 동안 그 곳에 있었을 것이며, 물론 심문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무교절의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6 절 “해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 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들 틈에서 두 쇠사슬로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니,” 7 절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8 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며,” 9 절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을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하더라.” 그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이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갔고, 천사를 따라 갔습니다. 10 절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다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가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는 떠났습니다. 11 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해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알겠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께서 구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 분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고, 번번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법론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어, 판에 박힌 공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판에 박힌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판에 박힌 것을 쥐려고만 한다는 것이 나의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같은 형태를 따라가고, 200 년 전에 했던 그런 찬송가를 여전히 노래하고 있는데, 아마도 300 년 전쯤 되는 것 같군요. 그들은 판에 박힌 것을 쥐고 있습니다. 판에 박힌 것과 무덤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직 길이와 깊이 뿐이므로,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형식주의와 의식주의가 그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각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방법과 수단에서 시대에 맞는 현재적 감각이 있으셨다고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 분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특별한 형식의 경배를 일으키셨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배의 음악처럼 말입니다. 마치 모든 하나님의 운동에서, 그 운동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 자신의 음악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물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그의 시도는 실패했는데, 이는 교회가

그를 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계획은 없었고, 단지 옛 교회를 개혁해 보려고 했을 뿐

인데,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제명을 당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개혁 세력과 전쟁하기로 결정했고, 개혁을 상대로 여러 혹독한 전쟁이 있었기에, 마틴 루터의 음악은 호전성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많았죠. 우리의 하나님은 강력한 요새시오,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성채시라! 당신이 알지만, 내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호전적인 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음악 때문에 비판을 당했습니다. 그가 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것들이 고전적 성가로부터 이탈했다고 그를 비판했고, 그 음악이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음악은 뜻이 통했고, 말들도 이치에 닿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아주 어려운 비평에 놓이게 되었고, 그 당시의 것을 반영해 썼던 음악이 그를 교회에 묶어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교회의 전통적인 옛 찬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는 찬양 리더로 이라 산크를 데리고 다녔는데, 산크는 완전한 새로운 형식의 교회음악을 소개했습니다. 약간 더 가볍고 여전히 매우 현대적인 것이었지만, 사실상 산크는 생전에 세상적인 음울을 많이 사용하여, 그것들에다 그리스도인의 가사들을 썼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음울을 취하여 그것들에다 그리스도인의 가사들을 썼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말썽이 났었습니다. 자연히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지금 산크의 노래들은 교회의 옛 찬송이 되어 버렸고, 우리는 교회의 옛 찬송가로서 그 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음악의 새로운 형태를 우리는 보고 있으나, 어느 날 하루 그것들의 동시대적 성질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흔들었던 합창곡 중에 몇 곡을 노래하면 그들은, 오! 얼마나 좋은 옛 찬송가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그들은 교회 찬송가 부르기의 역사 중에 한 부분으로 받아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법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풀어 주실 것인데, 그 때,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고 그들을 호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옥의 벽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 분은 지진을 보내시고, 벽을 흔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줄 것이기에, 그 분은 다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을 박스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분은 박스에 가두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대부분의 교단이 가진 근본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교단, 이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음악이고, 당신이 아홉 줄의 편벽에 사로 잡혔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융통성이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편벽에 말썽나지 않게 하소서! 다가올 수 년 안에, 사람들이, 음, 척 스미스가 이렇게 했지!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음! 나를 잊어라! 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분이 새로운 운동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만약 그 분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기에서 운동을 시작했던 때의 것이 깨질지라도 하나님의 움직임과 성령님의 움직임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가 자유로운 몸으로 길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절 “이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5 절로 돌아가 기억해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중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들이 마리아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녀의 집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인데, 그녀는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 마가의 어머니였으며, 그의 어머니 집에서 교회의 형태로 만나곤 했습니다. 요한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여행에 함께 하기도 했지만, 그 첫 번째의 전도 여행 도중에 향수병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함께 아시아 지방으로 갔던 그들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는, 오, 당신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기에, 바나바는, 그래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안돼, 안돼! 그가 첫 번째에서 우리를 버렸잖아! 이번에는 그와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음, 그가 지금은 다르다네, 알겠나? 그가 자랐어! 성숙했던 말일세! 여보게 함께 가세나! 라고 응수했습니다. 바울이, 안돼! 나는 그를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라고 단호히 말하므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말다툼이 크게 있어 그들의 교제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러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머리를 돌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려오라고 부탁했는데(딤후 4:11), 그가 내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있었던 반목은 치유되었고, 바울은 마가를 한 번 더 언급하기에 이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 마가는 아마도 겨우 12 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데, 마가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약간의 흥미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14:51 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실 때, 병사 중 한 명이 작은 소년 하나를 붙잡는데, 그는 병사의 손에 코트인지 외투인지를 버린 채 맨 몸으로 동산을 도망친 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거기에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작은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으나, 돌아다니기를 좋아했고, 행동하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이 왜 있잖아요? 마가는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기에, 예수님이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에 관한 배경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13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여자 아이가 듣고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문도 미쳐 열지 못하고 뛰어 들어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문 앞에서 있다 하니,” 15절 “그들이 이르되 네가 미쳤나 하나,” (그들은 그 여자 아이에게, 너 미쳤니!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지요,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그 집에 그가 와서, 문을 두드렸고, 이어 어린 여자 아이가 누가 거기에 있는지 찾으러 나오자, 베드로는, 나야 문 좀 열어라! 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 여자 아이는 문을 여는 것도 잊었을 만큼 매우 흥분하여, 안으로 뛰어가, 베드로가 밖에 와 있어요!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 미쳤니! 그는 감옥에 있잖아! 라고 반응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일지라도 우리가 기도 응답의 필요성 때문에 믿음에다 지나친 강조를 두는 것이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여주실 그의 경이로움을 주권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인데, 그들의 기도에서 비록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놀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있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정직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우!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여자 아이가 확고히 단언하여 사실이라 하니,” (예,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사실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심히 놀라거늘,”** 하나님께서 그 강함만큼이나 사람의 약함 속으로 통찰력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즉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 말인데, 우리는 그들이 인간 이상 약간 우위에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도달하기 불가능한 영적인 고원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그 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베드로에 대해 읽으므로 큰 위로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고, 그 분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면, 나도 그 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하는 격려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결함 속에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잠잠하라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밝히 말하고 또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그가 말하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인정한 지도자를 말하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물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벌써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니,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을 말하고, 이 서신은 실용적인 서신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서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말하라고 하고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흥미롭기에 충분한데, 첫 번째 교회 회의가, 15 장에서, 이방인의 믿는 자에게 법의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제로 말하면, 이방인이 되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럴 수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에 참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는 교회 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우리의 조상들이 능히 메지 못하던 노예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게 해서 안 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을 율법 아래 두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더 이상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장소로 가 버렸습니다.

지금 의심할 것 없이, 그는 헤롯 아그립바의 추적 때문에 숨었을 것인데, 이는 지독한 추격이 베드로에게 계속되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할 것 없이, 한 동안 헤롯

아그립바를 피해 숨어 다니면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작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도 압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고, 전통에 의하면, 그가 로마로 갔다고는 하나, 그 전통을 뒷받침 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로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찾

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를 탈출하도록 거기 성도들에게 격려를 받았다고 하는 식의 로마의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났을 때,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를 길에서 만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Quo Vadis', 네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셨다거나, 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Quo, Vadis'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가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거기서, 죽음에 있어, 예수님과 동일시되기를 원하신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뒤죽박죽인데, 이는 그가 주님처럼 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통일 따름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도, 혹은 전체가 사실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모르고, 알 수도 없으니, 당신이 아는 대로, 성경은 여기서 베드로의 사역과 삶의 기사가 끝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8 절 “이제 날이 세때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 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매 간수들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심문하고 사형에 처하라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에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그는 화가 나서, 로마의 법을 따라, 그 간수를 죽음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수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죄수가 탈옥을 했다면, 당신은 그가 받은 형량을 그대로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헤롯의 주장이었음을 넘기지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지키라고 요구를 받았던 이 군인들이 베드로가 받아야만 했던 형량을 따라 죽음에 놓일 처지가 되었습니다.

20 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이더라.” 지금 헤롯 아그립바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면서, 아마 두로에서 약 65km 가량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을 받아먹는 형편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의 음식을 가져왔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매우 비옥하고, 특히 겨울에, 많은 유럽 나라에 과일과 채소를 수출하는데, 이는 요단 골짜기 지역에서 일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헤롯을 달래려고 내려왔는데, 헤롯과 다시 질서를 갖추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21 절 “이에 헤롯이 한 날을 정하여 왕복을 차려 입고 자기의 왕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니,”

22 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이것이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음, 요세푸스가 이 사건을 기록하며, 그는 헤롯이 어떤 모습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극장에 나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으로 만든 외투를 입었기에, 거기 극장에서 그의 외투는 태양이 있는 곳에서 빛났고, 모든 사람들은, 신이시여! 신이시여! 라고 외쳐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그가 배에 경련을 일으키고 5 일 후에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역사가 이 사건을 기록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왕의 복장을 했다고 듣습니다. 지금 불과 몇 주 전에 우리는 가이사랴에 있는 극장에 있었습니다. 헤롯 시대에 거기에 있던 바로 그 극장의 그 장소, 그 장소는 헤롯이 태양에 빛나는 은으로 만든 왕의 의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신처럼 그를 환호하던 두로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연설을 했던 극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라고 계속 외쳐 대는 것을 읽습니다. 23 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래서, 그의 배에 경련이 났다고 말했으나, 성경은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의 천사가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5 일 안에 죽었다고 합니다.

24 절 **“그러나,”** (이 장의 작은 추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흥왕하더라.”** 그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당신이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할 자신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를 공격함으로써, 교회의 지도자를 죽임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잡아 목을 베었던 것이고, 이것으로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역시 그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인데, 교회가 파괴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흥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대적하여 이기려고 하지만, 교회가 파괴되기는커녕 이 일들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흥왕하여 갔습니다.

25 절 **“한편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이것이 우리를 11 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으므로 그 사역을 성취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 모은 돈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라 이름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온 요한 마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13 장으로 데려갈 것인데, 첫 번째 팀이 보내진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로부터입니다. 그 당시부터 계속, 안디옥의 교회는 그 당시의 주요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교 활동과 복음의 전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 장으로 가서, 다음 학습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사람의 삶에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셨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성령의 일하심에 마음을 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하셨던 방법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으로부터 지시되고 명령되는 것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소서, 주님. 당신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 있나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을 인도하소서, 주님. 당신의 원하시는 것이 모든 것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